

#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개정 방안

## Some Suggestion on the 5th Revise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정해성(Hae-Sung Jung)\*

### 〈 목 차 〉

I. 서론	IV. KDC 제5판의 개정 방안
II.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의 개정방안	1. 개요(summary)의 신설
III. KDC의 구조	2. 기호 합성지시 표기의 일관성 유지
1. 주기 종류의 확대	3. 주제합성과 내부보조표
2. 내부보조표(add table)의 채용	4. 보조표 내용의 확장
3. 주제 합성적용의 확대 및 표기방법	V. 결론
4. 보조표의 활용	

### 초 록

이 연구는 KDC 제5판의 개정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다. 개정되는 제5판은 조합식 구조를 전제로 다양한 합성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가표의 신설, 주기의 다양화, 보조표의 전개를 확대하고, 기호 합성방법은 “기본기호 ~에 ~표의 기호 ~을 합성한다.” 형식의 주기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실질적인 보조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KDC, 한국십진분류법, 기호합성, 조기표, 보조표, 패킷, 패킷구조, 패킷기호

###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w ideal classification scheme of revise edition of KDC. New suggestions are: using add table, diversify of note, and expand the auxiliary tables contents, add instruction like “Add to base number~notation ~from table ~.”

Key Words: KDC, Auxiliary Table, Number Building, Facet, Facet Structure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hschung@cu.ac.kr)

• 접수일: 2007년 11월 24일 • 최초심사일: 2007년 11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7년 12월 24일

## I. 서론

한국십진분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의 고유 분류법이 마련된 것은 국내 도서관에 적합한 통일된 분류법 제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46년 박봉석의 동서도서분류표(東西圖書分類表)의 초안이 발표되고, 이듬해 이의 요목을 수정하여 조선도서관협회에 의해 인준된 조선십진분류표(朝鮮十進分類表)이다.

그러나 박봉석 선생이 납북된 후, 위업이 계승되지 못하고 이 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DDC의 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sup>1)</sup> 이 표는 1965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하여 증정관이 발행됨과 동시에 한국십진분류표(KDCP)로 개제되어,<sup>2)</sup> 1960년대 국립도서관을 위시한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분류표가 되었다.

이밖에 고재창의 한은십진분류법(韓銀十進分類法)<sup>3)</sup>, 국연십진분류표(國研十進分類表)<sup>4)</sup> 등도 사용되었으나 이들은 특정 기관용이라는 한계를 지닌 분류표였다.<sup>5)</sup>

한편 1960년대부터는 미국의 도서관학이 도입되면서 DDC가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DDC는 구미위주의 분류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에는 유목의 전개가 부적절한 경우가 발견되어 DDC를 우리의 사정에 맞게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연세대학교, 국회도서관은 물론, 일부 학자들에 의해 새로이 전개하거나 고쳐 쓰는 방안이 제시되었고<sup>6)</sup> 조선십진분류표는 네 자리까지만 전개했기 때문에 분류항목이 부족하여 장서 규모가 큰 도서관들과 분류학계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분류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분류표 편찬사업에 착수하여 그 결과 한국십진분류표(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KDC)의 초판이 1964년에 간행되었고 수정판(1966)과 제3판(1980), 제4판(1996)이 각각 간행된 바 있다.

그러나 KDC는 제4판의 발행이후 20여년이 경과되는 동안 학문의 발전과 병행하여 기존의 분류표에서의 한자사용의 문제점, 한국학 관련 분야의 분류문제, 한글표기와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 방법의 현대화 등 도서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새로운 판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는 2007년 7월 30일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5판의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sup>7)</sup> 내년 10월 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으로, 제 44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KDC 제5판의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KDC 4판에서 발견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검토하

1)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60년사(서울 : 동회, 2005), p.97.

2) 리재철, “한국 자료의 서지적 정리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협월보, Vol.16, No.10(1967), pp.9-12.

3) 한국은행 조사부, 한은도서분류법(서울 : 한국은행, 1954).

4) 국방연구원, 국연십진분류표(서울 : 국방연구원, 1958).

5) 리재철, 상계논문.

6) 상계논문.

7) 한국도서관협회, “한글본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발간작업 시작,” 도서관문화, Vol.49, No.9(2007. 9), pp.4-7.

여 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실정과 분류이론에 맞는 분류표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각 학문 분야와 주제의 내용과 세목 전개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분류체계의 구조적인 측면만을 대상으로 한다.

## II.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의 개정방안<sup>8)</sup>

KDC가 초판부터 4판까지 유지해온 편찬 방침과 그 특징은 주류의 서열은 DDC에 준거하지만 어학과 문학을 상호 접근시키고, 응용과학은 기술과학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전체의 전개를 동양 중심으로 배열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해와 기억을 용이하게 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2개소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택일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분류항목 아래 가능한 한 많은 주를 달아 분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sup>9)</sup>

한도협 분류위원회는 이러한 기본 편찬 방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판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청회에서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그 개정시안의 내용을 보면 4판이 발행된 이후 20여년 동안 발전된 학문의 내용들을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문제, 한자사용의 문제, 한국학 관련 분야의 분류문제 등이 대두되어 표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표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 방법을 개정하여 시의에 적절한 분류표를 만드는 것이다.

분류표의 전개수준은 급속한 학문의 발전과 사회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도서관 기준으로 분류항목의 전개 수준을 확장하고 한국학 및 동양학 관련 주제들은 상세히 전개하여, 국내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의 문헌분류표에 한국학 및 동양 관계 전개 항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학문분야와 주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정과 새로운 주제를 수용하여 분류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분류표의 근간을 유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sup>10)</sup>

표의 구조에 대해서는 분류기호 합성 방식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을 통해 조합식 분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 1) 분류기호의 분석합성방식을 통해 체계적인 분류표를 편찬하고 분류표의 부피가 방대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주제 분야에 부가표(add table)을 제시하여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2) 전주제구분의 적용을 확대한다.

8) 남태우, KDC 5판 전국도서관대회 발표내용. [유인물]

9) 한국도서관협회, 상계서. p.98.

10) 남태우, 상계 내용.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4호)

- 3) 특수주제구분의 적용을 확대하고 일관성 있는 표기를 유지한다.
  - 4) 지역구분의 적용을 확대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
- 4판에서 사용하던 분류항목의 영·한문 표기방법으로
- 1) 한글맞춤법, 표준어,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표기법(인명, 지명 포함) 등의 모든 규정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한 한국어문규정의 각 해당내용에 따라 표기한다.
  - 2) 항목표기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학술용어를 적극 반영한다.
  - 3) 인명, 지명은 분류항목에서 뿐 만 아니라 주기에서도 모두 영문을 병기한다.
  - 4) 영문약어는 원괄호( ( ) )안에 완전형식을 함께 기입한다.
  - 5) 유사 및 동의어는 각괄호( < > )안에 함께 기입한다.

상관색인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항목을 표기할 때는 두음법칙을 적용하고, 색인어는 띄어쓰기 없이 모두 붙여 쓰는 letter by letter 방식을 채용한다. 그리고 용어간의 상관성을 최대한 살려주고, 동음이의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하고 인덴션을 이용하여 색인어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개념간의 계층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DDC에서 사용하는 표목의 동의어나 준동의어를 설명해주는 별명주기(variant name notes)나 이전표목주기(former heading notes)와 같이 필요한 주기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여, 양자택일의 주기 기제를 형식화하고 적용 항목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개정판에서는 동양 부분(철학, 종교, 민속학, 한의학 등)을 세분 전개하여 확대하는 동시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북한 관계 주제처리문제, 4판에서 잘못 적용된 지리구분 부분을 수정하고, 기호에 의한 계층구조 외에도 구조에 의한 계층구조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호 합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준구분, 표준구분 이외의 보조표, 본표의 다른 부분으로부터의 합성, 본표의 부가표로부터의 합성 등에 관한 주기를 세분화하고 자세하게 주기하도록 하고 DDC에서 사용하는 중앙엔트리(centered heading entry) 표기를 도입하여 중앙엔트리의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토픽들을 다루는 저작에 단일 분류기호가 부여되도록 하고, 분류표의 용어를 현대화된 용어로 표기한다.

### Ⅲ. KDC의 구조

#### 1. 주기 종류의 확대

학문이 날로 발전되어 자료가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에 따라 분류표의 조직도 복잡해지고 있다. 더욱이 분류표의 구조가 조합식으로 변화되면서 분류항목만 나열한 분류표로서는 정확한 분류를 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분류표에는 분류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당 항목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기는 모든 항목에 제시되는 것은 아니라 분류 항목만을 나열한 것으로는 정확한 분류를 하기 힘들 경우에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주기(Notes)는 기호의 계층구조에서 또는 표목에서 순서, 구조, 종속 관계, 기타 문제에 관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류나 세목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자신의 분류기호를 갖기에 불충분한 주제를 확인하며, 다른 유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본표와 보조표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sup>11)</sup>

DDC에는 개정주, 구표목에 관한 주, 정의주, 사전분류기호 합성주, 표준구분 합성주, 유사명칭주, 범위, 포함, 분류지시주, 첨가주, 사용중단주, 재배치주, 타 분류기호 지시주, 참조주, 상호참조주, 매뉴얼 보라주, 양자택일주의 순서로 본표와 보조표에 걸쳐 주기가<sup>12)</sup> 제시되어 있다. 이들 주기는 어떤 류와 그 세목에 어떤 내용이 있는 지를 알려주는 주, 포함주, 첨가주, 다른 류에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주, 본표 및 보조표의 변경내용이나 불규칙성을 설명하는 주, 양자택일 주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KDC에는 다음과 같은 주기가 제시되어 있다.<sup>13)</sup>

- ① 분류 항목의 정의, 설명, 범위를 제시하였다.(범위주)
- ② 분류항목과 관련되거나 접근된 주제의 포함을 표시하였다.(포함주)
- ③ 차후에 연구될 부분은 소주제까지 상세히 전개하지 않고 주기로 열거하였다.
- ④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특정 문헌의 서명, 인명, 및 지명을 예제로 주기에 기재하였다.
- ⑤ 조기표의 사용을 돕기 위해 그 구분의 전개를 주기에 지시하고 예를 들었다.(첨가주, 분류지시주)
- ⑥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양자택일(임의 규정)을 주기로 지시하였다.(양자택일주)
- ⑦ 참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기의 끝에 열거하고 있다.(참조주)

따라서 새로 개정되는 5판에는 DDC에서 사용하는 이전표목주기(former heading note)와 별명(유사명칭) 주기를 비롯한 다양한 주기를 주도록 하고 있다.

## 2. 내부보조표(add table)의 채용

KDC는 기본적으로 전조합 색인이기 때문에 모든 개념간의 관계는 분류기호로 제시되지만 특정 개념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합성기법을 다수 도입하고 있다.<sup>14)</sup> 특히 주제의 합성을 위해 많은

11)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2th ed. Edited by John S. Mitchell, Julian Beall, Winton E. Matthews, Jr. and Gregory R. New. (Lake Placid, N.Y. : Forest Press, 2003). Vol.1, pp.xlvii-xlviii.

12) *Ibid.*

1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4판(서울 : 동협회, 1996), pp.7-8.

14) 김태수, 분류의 이해(서울 :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pp.236-241.

부분에서 조기성의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보조표에 의한 조기성의 기법을 채택하였다.

조기표는 주제의 특성을 범주화한 것으로 이를 결합하여 특정 주제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sup>15)</sup> KDC는 보조표 이외에 본표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기호를 해당 분류기호에 직접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성을 부여하는 주제구분의 조합구조를 볼 수 있다.

DDC에서는 특정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부보조표(add table)을 사용하여 조합의 폭을 확대시키고, 분류표의 분량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KDC에도 이 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언하고 있다. 다음은 개정 시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호의 합성 방식과 현행 분류표에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조합 방법을 중심으로 합성구조를 검토하기로 한다.

십진식분류표에서 패시화된 구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본표에 나와 있는 모든 분류기호는 하나 이상의 보조표나 본표의 다른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기호의 일부를 추가시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sup>16)</sup> KDC도 조합식의 방법으로 표준구분을 사용하는 방법, 기타 보조표를 사용하는 방법, 본표의 다른 부분으로부터의 합성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DDC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부보조표(add table)은 채택하지 않고 있어 개정 5판에는 이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보조표(add table)는 특정 주제 분야에 적용할 보조표를 일컫는 것으로 DDC는 특정 학문(주제)분야에 대해 그 분야에만 적용할 수 있는 패시들을 부가표로 제시하고 이들 패시를 해당 주제의 지시에 따라 합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판의 음악류, 21판의 생명과학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패시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특정 학문분야나 주제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패시(세구분)을 전개시켜 표로 제시하고 각주에 지시에 따라 해당 분류기호에 합성시키는 방법이다.

예:

573 Specific physiological systems in animal, regional histology  
and physiology in animals

Except for modifications shown under specific entries, add to each subdivision identified by * as follows:		
01-1	Standards subdivisions: comprehensive physiology: the system in specific kinds of animals Add the numbers following 571 in 571.01-571.1, e.g comparative physiology of the system 1, the system in mammals 19	
2	Operation of one physiological system within another system Class hormones 374	①

15) 상계서, pp.150-151.

16)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공저, KDC의 이해(대구 : 태일사, 2002), p.91.

573.1 \*Circulation system ②  
 Class here cardiocascular system

\*Add as instructed under 573③<sup>17)</sup>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573(동물생리학)의 세목으로 제시된 항목중 \* 표시가 있는 표목은 ①의 부가표에 있는 지시에 따라 분류기호 합성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소화기관 백과사전」은 573.1 + 03 → 573.103이 되고, 「동물의 소화기관」은 소화기관(②)에는 \* 표시가 있어 ③의 각주에 따라 ①의 부가표의 기호를 합성하면 573.1 + 1(571.1에서 571 다음의 기호) → 573.11이 된다.

이와 같이 부가표는 십진식 분류체계에는 합성주제의 표현을 위한 패킷 공식이 없어 각 주제아래 지시된 부가표에 따라 합성 주제에 대한 합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특수주제합성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KDC 제5판에 패킷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가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DDC에서는 중앙표목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류기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호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가표가 제시되고 있다.

중앙표목(centered entry)는 기호법에 의한 계층구조를 벗어나는 범위의 분류기호들에 표시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호의 표시가 분류기호 컬럼이 아닌 DDC의 인쇄면 중앙에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표목이라고 한다. 중앙 표목은 기호컬럼에 “>”라는 부호로 표시하며 포괄적 저작주기(comprehensive work notes)를 통해 표목들의 범위 안에 속하는 토픽들을 다루는 저작(분류기호군(群))에 단일분류기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sup>19)</sup>

예:

> 026-027 Specific kinds of institutions  
 Class here specific libraries, archives, ...

### 3. 주제 합성적용의 확대 및 표기방법

분류표상의 상이한 주제 영역의 분류기호를 합성하여 새로운 분류기호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크게 전주제 합성과 특수주제 합성으로 구분된다.

17)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2th ed. Edited by John S. Mitchell, Julian Beall, Winton E. Matthews, Jr. and Gregory R. New.(Lake Placid, N.Y. : Forest Press, 2003). Vol.2. pp.1113-1114.

18) 김태수, 상계서, p.161.

19)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2th ed. Edited by John S. Mitchell, Julian Beall, Winton E. Matthews, Jr. and Gregory R. New.(Lake Placid, N.Y. : Forest Press, 2003). Vol.1, p.lxvi.

전주제 합성은 특정 주제와 분류표상의 모든 주제를 결합하여 특정 주제의 의미 범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001-999와 같이 主題區分한다」라는 형식으로 제시되는 표목에 사용되는 것이고,

예:

026.9      專門圖書館 및 情報센터  
각 主題(專門)分野의 專門圖書館은 001-999와 같이 主題區分한다.  
예: 法律圖書館 026.936

특수주제 합성은 특정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분류표상에 전개된 일정 범위의 주제를 합성하여 새로운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합성기법은 특수하고 제한된 범위의 주제를 하나의 범주로 취급하고 이를 합성하여 주제의 범위를 한정하는 기법으로<sup>20)</sup> 합성의 범위가 특수 주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전주제 합성과 다르며, 「025.351-.359는 024.9와 같이 細分한다」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

024.35      特殊資料의 目錄 作成法  
025.351-.359는 024.9와 같이 細分한다. 예: 地圖目錄作成 024.358

그러나 KDC에는 기호합성 주기에 합성 예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기호 합성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DDC는 기호 합성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합성결과의 분류기호와 합성에 필요한 기호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 분류기호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나 KDC에는 합성주기가 분명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 ① 026.001-.999      Specific subjects and disciplines  
                                 Add to base number 026 notation 001-999  
                                 , medical libraries 026.61
- ② 025.56              Orientation and bibliographic instruction for user  
                                 Add to base number 025.56 the numbers following 02 in 026-027,  
                                 e.g., orientation to public libraries 025.5674

①의 예 의학도서관은 기본기호 026에 의학(610)을 합성하여 026.61로 표시한 것이고 ②의 예 공공도서관의 오리엔테이션을 기호로 표시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의 기본기호 025.56에 공공도서관 027.4에서 02다음의 기호인 74를 빼앗기호로 하여 합성해서 025.5674라는 기호로 표시해주는

20) 김태수, 상계서, pp.160-161.

예이다. 이와 같이 DDC에는 합성되는 기호들이 분명하게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기호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KDC에서도 주제합성이 필요한 경우 합성되는 기호와 그 범위를 분명히 표기하여 기호합성의 오류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보조표의 활용

##### 가. 표준구분의 문제

KDC는 DDC와 마찬가지로 분류기호의 기본 자리수가 세 자리이므로 주류나 강의 경우에는 한자리와 두 자리의 분류기호만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세 자리의 부족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의미가 없는 영(0)이 부가되어 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추가된 영(0)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표준구분 기호를 합성할 때는 영(0)을 삭제하고 표준구분의 기호를 합성하여야 한다.<sup>21)</sup> 따라서 표준구분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주제의 전개에 따라 예외적인 적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표의 지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구분의 기호를 합성하여야 한다.

KDC의 경우는 표준구분 합성 지시가 「101 理論 및 哲學의 效用」, 「329.4001- .4009 標準區分」, 「341.001-341.009는 標準區分한다」, 「345.001-.008은 標準區分한다」, 「藝術에 관한 標準區分은 600.1-.9에, 美術에 관한 標準區分은 601-609에 分類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지시되어 있다. 그러나 「454.03 海洋化學」과 같이 지시되어 있는데 이 기호는 「海洋學事典」(해양학과 사전을 합성한 454.03 ← 454 + -03)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표준구분의 합성 지시를 DDC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와 같이 일관성 있게 하여야 한다.

020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020.1-.9	Standard subdivisions(summary)	①
020.7	Education, research, related topics	
026	Lbraries, archives, documentation centers devoted to specific subjects anddiscipline	
.0001-.0005	Standard subdivision	②
.001-999	Specific subjects and disciplines	
027	General libraries, archives, documentation center	
.001-.005	Standard subdivisions	③
.009	Historical and persons treatment	
.01-.09	Geographic treatment	
.3	Rental libraries	

21)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2th ed. Edited by John S. Mitchell, Julian Beall, Winton E. Matthews, Jr. and Gregory R. New.(Lake Placid, N.Y. : Forest Press, 2003). Vol.1, liii.; 윤희운 정보자료분류론. 수정판.(대구 : 태일사, 2005), p.96.

나. 지역구분의 문제

발표된 개정 시안에서는 지역구분의 방법을 지역구분의 적용확대와 지역구분 적요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DDC나 KDC의 지역구분 방법은 지역구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류 기호에 있는 부가지시 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기호를 직접 추가하는 방법과 표준구분 기호 -09을 본표 해당 분류기호에 추가하고 지역구분표의 기호를 추가하는 방법으로<sup>22)</sup> 지역구분표(Table 2)를 사용하지만 KDC는 지역구분표는 있으나 이 표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분이 필요한 경우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또는 「027.1-.9는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특수주제 합성의 방법으로 기호 조합이 이루어진다.

DDC에는 지역구분이 필요한 경우

027.4 Public libraries

.430.49 Treatment by specific continents, countries, localities

*Add to base number 027.4 notation 3-9 from Table 2*

와 같은 형식으로 지시가 되어있어 정확한 분류기호를 매길 수 있으나 KDC의 경우는 기호를 매기는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다. 표준구분 이외의 보조표를 사용하는 방법

표준구분과 지역구분 이외에 KDC에는 보조표를 분류표 전체에 합성하는 구조에는 한국지역구분표, 한국시대구분표, 국어구분표 등이 있으나 한국지역구분표는 「本表 911.1-99와 같이 區分한다」, 한국시대구분표는 「本表 911.01-079와 같이 區分한다」, 국어구분표는 -1-8은 지역구분표의 11-13, 24-28의 두 번째 기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도록 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어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710-799와 같이 國語區分한다」와 같이 특수주제 합성방법으로 지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조표의 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특정 류에만 합성시키는 보조표인 언어공통구분, 문학형식구분, 종교공통구분이 있으나 언어류에는 보조표에 전개된 기호를 각 언어의 목의 자리에 고정적으로 전개시키고 있고, 문학형식구분표도 808(全集叢書)에 「808.1-.8은 文學形式區分表에 따라 細分한다」와 809.1-.8 각 문학형식의 역사 의 주기에 「文學形式區分表에 따라 細分한다」로 제시되어 있을 뿐 각국 문학의 하위 전개는 문학형식구분표의 기호를 목의 자리에 고정적으로 전개 시켜 놓고 있다. 따라서 KDC의 문학형식구분은 839, 849, 859,869, 879, 889의 기타 문학 과 890 기타 제 문학의 892-899을 세분할 때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비교종교(211-218)의 목으로 전개된 구분을 각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전개해놓은 종교공

22) 오동근, 전게서, p.70.

통구분(보조표)는 240-290의 각 종교의 하위구분을 할 때 「圖書館에 따라 211-218과 같이 細分할 수 있다」로 지시되어 있고 238.9(其他 基督教 分派)와 239(猶太教)는 「圖書館에 따라 231-238과 같이 細分할 수 있다」와 같이 지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보조표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23)</sup>

분류기호 250(천도교)에는 “圖書館에 따라 211-218과 같이 細分할 수 있다.”<sup>24)</sup> 고 지시하고 예로 教義(向我設位說, 三取說, 人乃天說, 聖靈出世說 등) 251; 教祖, 教主 252;(東經大全 등) 253; 信仰錄, 信仰生活 254, 布教, 傳導, 教育, 教化活動 255; 教團 256; 儀式, 行事(祝文, 淸水, 侍日, 試米, 祈禱 등) 257 과 같이 해당 기호에 주기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260(신도), 270(파라문교, 인도교), 280 회교(이슬람교)의 주기에도 지시되어 있어<sup>25)</sup> 종교공통구분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 IV. KDC 제5판의 개정방안

전장에서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의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KDC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분류위원회의 개정시안에 보완할 내용이나 새로 개정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개요(summary)의 신설

DDC는 본표나 보조표에 특정 류의 전체를 개괄해 볼 수 있는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DDC의 계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100구분표나 각 기호의 범주에 속하는 하위 계층의 내용들을 나열하는 경우, 그리고 각 주제의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DDC 382(International commerce) 항에 제시된 개요의 일부에 대한 예이다.<sup>26)</sup>

	SUMMARY
382.01-.09	Standard subdivisions
.1	General topics of international commerce
.2	Commercial policy
.4	Specific products and services
	이하 생략

23) 분류기호 238.9(기타 基督教 分派)의 주기에는 “圖書館에 따라 231-238과 같이 細分할 수 있다. 1. 教義, 教理; 2 教祖, 開宗者; 3 聖典; 4 信仰錄, 信仰生活; 5 傳導, 教育; 6 教會論; 7 禮拜, 儀式, 聖禮; 8 教派 예:모르몬경 238.923; 귀일교회파 교리 238.911”과 같이 종교구분표의 내용을 필요한 분류기호에 부여하여 보조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있다.

24)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4판(서울 : 동협회, 1996), p.168.

25) 상계서, pp.168-169.

26)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2th ed. Edited by John S. Mitchell, Julian Beall, Winton E. Matthews, Jr. and Gregory R. New.(Lake Placid, N.Y. : Forest Press, 2003). Vol.1, xlvi.

위의 예와 같이 KDC에도 개요표를 채택하여 해당 주제의 범위를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 요
020.1-.9	표준구분
021	도서관행정 및 재정
022	도서관 건축 및 설비
023	도서관 경영, 관리
024	수서, 정리 및 보관
025	도서관 봉사 및 활동
026	일반도서관
027	학교 및 대학도서관
[028]	정보과학
029	독서 및 정보매체의 이용

## 2. 기호 합성지시 표기의 일관성 유지

KDC에는 기호 조합의 방법을 지시하는 방법이 이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고 정확한 기호매김 공정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합성의 지시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 가. 표준구분의 경우

#### ① 개요에 표준구분의 예를 제시하는 경우

	개 요
020.1-.9	표준구분

#### ② 기호의 범위를 보여주는 경우

026.9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90001-90009	표준구분
.9001-9999	주제별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 ③ 표상에 표준구분의 경우를 제시하는 경우

020.1	이론
.6	학회, 단체, 협회, 기관, 회의
.9	문헌정보학사

#### ④ 특정 표목에 표준구분을 적용 범위를 주기로 지시하는 경우

024.42	분류와 서가배열
	표준구분은 표목 전체 또는 표목 분류, 서가배열에 각각 합성한다.

위는 분류기호 024.42가 표목 분류와 서가배열에 배정되었지만 분류 또는 서가배열이 독립 표목

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각각 합성할 수 있다. 예컨대 「분류와 서가배열의 역사」, 「분류의 역사」, 「서가배열의 역사」가 모두 024.4209로 표시될 수 있다.

나. 지역구분과 국어구분의 경우

개정시안에는 지역구분의 확대 및 일관성 있는 지역구분의 적용과 잘못 적용된 지역구분의 예를 지시하고 있다.

377 대학, 전문, 고등교육 .01-.07 각국의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 한다. 예: 한국고등교육 377.011	①
326.7 방송 .71 방송정책, 행정 및 법규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 한다. 예: 일본방송정책 326.7113	②
334.1 사회정책 국가, 단체 등의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다.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예: 미국 사회정책 334.142 .13 사회적 행동 .14 사회봉사활동	③
332.92 인구 인구조론(멜서스 인구조론), 인구조제, 인구정책, 인구사회학 등을 포함한다. 910-979와 같이 地域區分한다. 예: 한국의 인구정책: 322.92011 .923 산아제한 .924 인구와 식량 .9501 이민정책 및 행정	④

위 ①과 ②는 기호칼럼에 기호제시 방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①은 377.01-377.07에서 기호 1부터 7은 지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②의 기호 326.71은 방송정책이란 주제의 기호로 이 기호에 다시 지역기호를 합성해야 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분류자가 「아시아 각국의 방송정책」을 분류할 때 326.71이란 기호를 부여 할 수 있다.

또한 ③은 334.14가 사회봉사 활동으로 334.1 사회정책을 지역구분한 미국 사회정책 334.142는 사회봉사 활동의 하위항목이 되며, ④는 지역구분을 적용할 때 분류기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0'을 부가한 후 지역구분기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와 같이 지역구분이 필요한 경우 표상의 지시 '910-979와 같이 지역구분한다'에 따라 특수주제합성을 하기 때문에 표 자체에 잘못 적용된 경우도 생기고, 실제 분류 시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구분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기호의 범위를 기호칼럼에 제시하고 지역구분 기호와 합성될 기본기호를 분명히 명시해주고 지역구분이 필요한 표목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구분 지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4호)

- 027 일반도서관
  - .01-.07 각국의 도서관
    - 기본기호 027.0에 지역구분표 기호 1-7을 합성한다.
  - .1 국립도서관
    - .11-17 각국의 국립도서관
      - 기본기호 027.1에 지역구분표 기호 1-7을 합성한다.
    - .2 지방대표도서관
      - .21-27 각 지역 대표도서관
        - 기본기호 027.2에 한국지역구분표 기호 1-9를 합성한다.

또한 국어구분의 경우도

233.077	現代 各國語 聖經 도서관에 따라 710-799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예: 한국어 성경 233.0771: 영어 성경 233.0774
033.91-.98	기타 아시아 諸國語(백과사전) 739.1-.8과 같이 細分한다. 예: 터키어 백과사전 033.94

와 같이 지시되어 있어 오분류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어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기호 ----에 국어구분표의 기호 1-9를 합성한다’로 표기하여 기호의 패킷 개념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기타 아시아 제국어의 경우는 국어구분표를 사용하지 않고 특수주제 합성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도 국어구분표의 기호를 합성하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다. 특정 류 에 한정되어 합성되는 보조표

KDC 종교류(200), 언어류(700), 문학류(800)에 각각 합성하는 보조표인 종교공통구분표, 언어공통구분표, 문학형식구분표 등의 보조표가 있다. 이들 보조표는 각 류의 목의 위치에 합성되어 주로 형식을 표시하는 패킷기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보조표의 기호(패킷)는 각 류에 목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고 기호 합성의 예를 보기 어렵다.

700(언어류)의 720(중국어) - 780(이탈리아어) 목의 위치(72△-78△)의 각 △의 전개를 ‘711-717과 같이 구분한다’ 또는 71△와 같이 구분한다’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공통구분표를 현재와 같이 1-8까지 한 자리 항목만 제시하지 않고 보조표의 내용을 세분화 시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 > 710-790 각국 언어
  - 특정 표목에 제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 표시된 각 언어의 기본기호에 언어공통구분의 기호 01-8을 합성한다.
  - 예: 이탈리아어 구분법 785.8

그리고 종교류(230-290)과 문학류(840-899)의 경우도 위와 같은 지시방법을 사용하면 표의 구조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 > 230-290 여러 종교  
특정 표목에 제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 표시된 각 종교의 기본기호에 종교공통구분 기호 01-8을 합성한다.  
예: 랍비 239.2
  
- > 840-890 각국 언어  
특정 표목에 제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 표시된 각 문학의 기본기호에 문학형식구분 기호 01-8을 합성한다.  
예: 포르투갈 소설 879.3

**라. 전주제 합성과 특수주제 합성**

개정시안에는 전주제 합성과 특수주제합성의 적용을 확대하고 일관성 있는 표기를 유지하기로 하고 다음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025.25	정보탐색과 검색봉사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 한다. 예: 물리학 정보검색 025.2542
574.804	과일류 도서관에 따라 526.62-.69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예: 감귤류 과일 574.8045
574.805	야채류 도서관에 따라 525.4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예: 김치 574.8055

그러나 개정되는 분류표에는 일관성 있는 합성지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전주제 합성은 기본 기호 025.25에 기호001-999를 합성한다, 특수주제의 합성은 과일류의 경우 기본기호 574.804에 기호 576.62-576.69에서 576.6 다음의 기호를 합성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정확한 분류 기호 합성을 기대할 수 있다.

**3. 주제합성과 내부보조표**

DDC는 중앙 표목에 포함되는 주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조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개정시안에도 부가표의 기호를 패싯기호로 사용하여 기호를 합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열거식 분류표가 합성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은 표의 구조를 패싯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KDC는 내부보조표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항목에서 내부보조표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 986 오세아니아 地理(Geography of Oceania)  
960과 같이 地域區分하고 980.1-.8과 같이 細分한다.

위의 예에서 980.1-.8과 같이 세분한다는 980.1-.8에 전개된 기호를 특수주제의 방식으로 합성하

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은 형식의 내부보조표를 마련하면 981-988의 하위구분이 세분될 수 있다.

>	981-988	각 지역의 지리
		기본기호 98에 지역구분기호 1-8을 합성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호를 합성한다.
		예: 파푸아뉴기니 여행 986.402
01		이론
0109		지리학사
02		명승안내, 여행
		특정한 지역의 명승안내, 여행은 그 지역에 분류한다.
		교통 → 326.3; 관광 → 326.39
0208		명승답사집 및 기행집
022		사적, 명승, 경관
		지역구분 할 수 없는 종합저작을 포함한다.
024		세계여행, 안내기
029		탐험기, 발견기
		표류기를 포함한다.
03		지리사전, 사전(事典)
04-08		표준구분
09		지리사(地理史)

#### 4. 보조표 내용의 확장

KDC 4판의 단점은 각 보조표 내용의 세분 전개가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아 구색을 맞추기 위한 표에 불과 할 뿐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표의 내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본표와 보조표의 내용을 합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분 특수주제 합성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호 매김에 정확성이 결여되고, 어려움이 많다. 표준구분을 비롯하여 나머지 보조표들에 대한 개정과 확충이 5판에서 이루어 져야 하겠다. 표준구분, 지역구분, 한국지리구분, 국어구분에 대한 시안은 발표된 바 있고,<sup>27)</sup> 지역구분표의 통합과 세분에 대한 연구<sup>28)</sup> 이번 기회에 보조표 전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참고로 언어형식구분표(안)을 다음에 제시한다.

#### < 언어공통구분표 >

-01-09	표준구분
-1	음운, 음성, 문자(Phonology, phonetics, writing)
-11	음운, 음성, 발음
-12	각 언어의 문자
-125	철자법

27) 丁海晟, "韓國十進分類法の 補助表에 관한 研究 : 새로운 補助表를 위한 改正試案," 曉星女子大學校 論文集, 第45輯 (1992), pp.183-208.

28) 이창수, "LCC 지도자료 분류의 특성과 KDC에서의 적용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8, No.3(2007. 9), pp.168-173.

- 126                   풀어쓰기
- 2                   어원, 어의(Etymology, semantics)
- 3                   사전(Dictionaries)
- 32-39               2개 국어사전
  - 기본기호 -3에 국어구분표의 기호 1-9를 합성한다.
  - 2개 국어사전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언어에 분류하고 상대어를 부가한다. 예: 한영(영한)사전 713.4(미국의 입장), 한영(영한)사 전 743.1(한국의 입장)
  - 도서관에 따라 2개 국어사전은 표목어에 분류하고 해설어를 부가할 수 있다. 예: 한영사전 713.4: 영한사전 743.1
- 4                   어휘(Vocabularies)
- 41                   기본어, 기초어
- 42                   속어, 관요어
- 45                   유어(類語), 동의어, 반의어
- 46                   동음이의어
- 47                   신어, 외래어
- 48                   아동어
- 49                   은어, 계급어
- 5                   문법(Grammar)
- 51                   품사론(씨갈)
- 52                   명사(이름씨)
- 53                   대명사(대이름씨)
- 54                   동사(움직씨, 조동사(도움움직씨))
  - 준동사, 동명사, 부정사, 분사 등을 포함한다.
- 55                   형용사(그림씨), 관형사(매김씨), 수사(셈씨)
- 56                   지정사
- 57                   조사(토씨), 부사(어찌씨), 감탄사(느낌씨), 접속사(이음씨), 전치사
- 58                   구문법
- 59                   대우법
  - 공대법, 하대법 등을 포함한다.
- 6                   작문(Composition)
- 7                   독본, 해석, 회화(Textbooks, Interpretation, conversation)

-72	독본
-74	해석
-75	회화
-76	외국인을 위한 국어교과서
-8	고어, 방언, 속어(Archaic word, dialect, slangs)
-802	고어
-81-87	각 지방의 방언

기본기호 -8에 지역구분표 기호 1-7을 합성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의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공청회에서 분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KDC 제4판에서 발견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실정과 분류이론에 맞는 분류표를 마련하는데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KDC는 십진십 분류표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식의 구조중의 하나인 보조표를 본표와 결합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조표들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기호합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주제합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판에서는 보조표들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특정 주제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부보조표를 신설하고, 특정 주제군을 표현하는 중앙표 목의 사용 및 요약(summary) 항을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한 자리 기호로만 구성된 보조표의 내용을 좀 더 확대 개편하고 본표의 기호와 보조표의 기호를 합성할 때 합성되는 기호들이 분명하게 표시될 수 있는 합성주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류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12월을 목표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년만에 개정되는 새로운 판은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특수한 분야의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를 참여시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분류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KDC 제5판을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조적인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특정 류들의 세분 전개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으며, 제시된 언어형식 구분표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며, 다른 보조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